

담양공공도서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상호문화이해 책놀이'·'오감쑹쑹 미술놀이'

다문화 인식 개선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서로의 문화 배우며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형성

담양공공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7월까지 마을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독서문화 전문가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책과 놀이를 결합하여 다양한 독후활동을 해보는 오감책놀이 수업인 '상호문화이해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부터 8월까지 담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반 및 이주여성 가족을 대상

으로 '오감쑹쑹 미술놀이'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며, 자녀와 엄마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한국생활로 지친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중점을 두어 진행된다.

도서관 조선희 주무관은 "다문화 및 일반 가정의 자녀와 엄마가 함께 어울려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 이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양덕례초, '찾아가는 수련활동' 운영

'건강UP! 필라테스'·'탈춤'·'우리는 하나(레크레이션)' 등 구성

광양덕례초등학교(교장 전문주)는 4일 5학년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리산학생수련장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교육 요원들이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는 체험활동이다.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체육관 및 각 교실에서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건강UP! 필라테스', '탈춤', '우리는 하나(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5학년 박OO 학생은 "학교를 벗어나 체험활동을 떠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학교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동하고, 평소에 체험할 수 없었던 탈춤이나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전문주 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며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며 실천력을 증진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동일미래과학고,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주)씨와이와 업무협약

4차 산업혁명 대응 '창의 융합형 전문 인력' 양성

동일미래과학고가 최근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주)씨와이와 함께 토탈뷰티과의 학과 재구조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교육과정 발굴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5일 동일미래과학고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동일미래과학고 이강희 교장, (사)광주화장품산업진흥회 전일승 회장, (주)씨와이' 조영득 대표이사 등 세 기관 산·학협력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동일미래과학고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발굴 및 교육 지원 ▲토탈뷰티과 학과 재구조화 운영 지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협의를 하며 지속적·발전적 교류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 간담회가 진행됐다. 최근 동일미래과학고가 추진하고 있는 뷰티메니저 인력양성 학과 재구조화 및 직업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일미래과학고 이강희 교장은 "이번 협약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해 기관들이 함께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뷰티분야 선도 특성화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조동근 장학사는 "지역 거점 산업과 직업교육을 접목해 중장기 발전이 가능한 직업교육 체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훈희기자

화순교육청, 전남대병원 내 '여미사랑 병원학교' 운영

광주·전남 건강장애 학생들 학습권 보장 위해 설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남대병원 내 여미사랑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여미사랑 병원학교는 림프성 백혈병, 소아암 등의 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 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광주·전남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화순오성초등학교와 화순제일중학교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하여 초·중등 두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3일 화순오성초등학교(교장 이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병원학급에서는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 어려워

하는 담임교사를 위해 학교 복귀 도서 및 리플렛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배부하였다.

화순오성초 윤보희 특수교사는 "대부분의 원적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소아암 학생을 맡는 일이 처음이라 생소하고 어려우실텐데 그런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꾸러미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했으며, 화순오성초 이숙 교장은 "소아암 치료를 받은 학생이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주변 모든 사람의 참여와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이현희 교육장은 "긴 시간 동안 힘든 치료를 마치고 학교로 복귀하는 학



생과 부모님, 원적 학교 담임선생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보내며, 앞으로도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